

##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소재에 따른 색채 특성

이 영 경\*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Color Analysis of Glasses Cases of the Middle and Late Joseon Dynasty, by Materials

Young-Kyung Lee\* · Young-In Kim\*\*

Doctoral Cours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8. 1. 1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osely examine the history of glasses and their cases used in the middle and late of Joseon Dynasty and identify inherent quality of our traditional glasses cases through color analyses of glasses cases' material and shape. While theoretical examin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s of glasses and their cases that firstly appeared in around Japanese Invasion (Imjin war) of Korea in 1592, practical analyses were demonstrated on photos of glasses cases used in the middle and late of Joseon Dynasty collected from both museum pieces and the internet which were grouped into wood, fabric, paper, sharkskin, hawksbill and cow's horn in accordance with their materials. 623 color samples were abstracted from collected 159 glasses cases and quantity analyses on each material were performed respectively. Abstracted representative colors based on the result of color analyses were classified into the main materials and accessories' color scheme.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both Yellow and Yellow Red were mostly used in main materials. In Fabric case's colors were widely used in embroidery and in animal matter material cases such as sharkskin, hawksbill and cow's horn, which can be used as itself or dyed, Green Yellow shown in high frequency. Secondly, accessories were analyzed into similarity coloration with main materials. From this finding, it turns out that our traditional cases have characteristic of similarity coloration between main materials and accessories. Red Purple and Purple Blue in high frequency in accessories used as an accent color.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hue and tone, while the middle and low value colors shown in very high frequency, the high-chroma colors hardly shown.

Key words: Josen dynasty(조선시대), glasses case(안경집), traditional color(전통 색채)

## I.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자국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과 독창성이 문화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시대에 부합하며 독창적인 민족의 미의식을 창출하는 디자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미지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본적이기도 하고 중국적이기도 한 혼혈문화처럼 비춰져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 소르망(Guy Sorman)의 말처럼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세계 속에서 한국적 문화 정체성의 확립과 활용이 정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에 우리 고유의 전통을 현대의 디자인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특정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채는 한 국가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므로, 전통색채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 디자인의 색감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전통 색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음향오행에 기반을 둔 복식과 장신구 전반에 나타난 오방색과 간색의 배색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백자와 청자 등에서 우리나라의 색감이나 염색하지 않은 천연소재와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미감을 보여주는 소색 등과 같이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보다 구체적인 대표색이 현대 디자인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보고 이제 까지 연구되지 않은 영역에서 구체적인 한국 색채의 아름다움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나타난 안경집 색감의 전통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안경집은 안경을 담아두고 휴대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이지만 나무, 종이, 어피, 가죽, 비단 등 다양한 소재와 부속 재료 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며 한국의 미의식 드러내는 장식예술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조선 중·후기에 우리나라

라 상류층 패션의 장식품으로까지 자리매김하였던 안경집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고, 실제 유물이 현존하는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에 따른 색채와 배색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문화적 의미와 더불어 그 형태와 재질을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로서 소재에 따른 색채특성은 인터넷 자료 및 국립민속 박물관<sup>2)</sup>, 온양 민속 박물관<sup>3)4)</sup>, 초당대학교 안경박물관의 소장품 전시도록<sup>5)</sup>과 숙명여대 박물관<sup>6)</sup>,이화여대 박물관유물사진자료<sup>7)</sup>를 통해 수집한 총 159개의 안경집에서 623개의 색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색채 분석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정량적 방법은 안경집의 이미지 자료에서 시감으로 소재의 대표색이 될 수 있는 색들을 선정하여 HP Photo Smart 2575 스캐너와 Adobe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GB값을 추출한 후 먼셀 컨버전(Munsell Conversion 7.0.4) 프로그램을 통해 먼셀 H V/C 값으로 전환하여 색상 데이터 분석하였고, PCSS에 근거하여 색조를 분석하였다. 전통 색채 분석에 있어서 실제 유물을 측색하기 어렵고 특히 직물의 경우 유물의 정확한 색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이 변화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디지털 이미지의 색은 실제 유물의 색과 다르게 재현되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여 인터넷이나 도록의 사진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선행연구<sup>8)9)10)</sup>의 결과 도록의 사진을 시감 측색한 결과와 스캔 받은 디지털 자료의 색을 분석한 결과가 거의 같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색을 분석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물 색의 변화는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40색상, 12색조 영역에서는 오차의 범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색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방법은 안경집의 색을 색채 전문가의 시감으로 판단하여 각 소재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색감 중에서 그 유물을 잘 나타내는 대표 색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 안경집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안경의 기원과 우리나라 안경집의 변천

이 지구상에 언제부터 안경이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안경이 렌즈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렌즈의 발생과 안경의 발생을 동일하게 추정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885년 쿠밍과 호너의 논문이다. 이들은 안경이 이미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자료로 기원전 2283년에 별을 관측한 렌즈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류학자인 라우퍼(Berthold, Laufer: 1874~1934)도 190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인들이 안경을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대의 목가가 거울과 빛을 이용해 빛의 반사와 굴절을 실험했으며, 송 대의 담초는 양 오목, 양 볼록, 평 오목, 평 볼록의 4개의 렌즈를 실험한 내용, 중국 구전 설화에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안경을 썼다는 내용 등의 근거가 많이 남아있다.<sup>11)</sup> 위와 같은 기록들은 중국에서 안경이 발명되어 세계각지로 전해졌음을 입증한다. 또한, 13세기 유리알 렌즈가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발명되었고 이를 최초의 안경으로 보기도 한다. 안경에 대한 내력은 확실히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안경은 학자나 수도승에 의해 중국의 원나라에까지 보급되었고 원나라가 막강한 힘을 자랑했을 때 안경은 동양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발돼 세계 각처에 영향을 주었다<sup>12)</sup>고 한다.

우리나라 안경의 기원 역시 확실치 않으며 논술서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헌 부족 등으로 안경의 역사가 확연히 밝혀진 연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숭상된 유학은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독자적인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예능방면이나 상공업분야를 천시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와 함께 장유유서의 질서와 반상의 엄격한 차이에 의해 조선시대에는 안경의 착용에 대해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상고」에서 젊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지체가 높은 어른 앞에서는 안경을 쓰지 못하는 안경에 대

한 예법이 나타나있다.<sup>13)</sup> 또한, 선대가 쓰던 안경은 후대가 대물림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안경을 유물로 남기는 일을 방해했고 그나마 남은 안경조차 그 연대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였다.<sup>14)</sup>

우리나라 안경의 유래는 전래설과 자생설이 있는데, 전래설은 13세기 말 베니스에서 최초의 대못안경이 제작되었다는 기록에 근거할 때, 외부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신라 고분 등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산 유리 제품 등을 볼 때 조선시대에도 고대로부터 밀접한 관계였던 중국을 통해 안경수입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자생설의 경우 근거를 그 형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안경 중 가장 오래 된 학봉 김성일(1538~1596)<sup>15)</sup>의 안경으로 미루어 볼 때, 안경의 장식이 중국의 것과는 다르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이 안경은 1580년대의 것으로 추정하며 재질은 귀갑 즉, 거북의 등껍질로 되어 있고, 폼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정밀한 경첩을 달았고 끈을 꿰어 귀에 고정하게 되어 있다. 안경집은 나무를 파서 안경을 접어 넣게 되어 있고 뚜껑은 옆으로 비껴 열게 되어 있는데, 이 안경의 형태는 조선의 특유의 투박함과 섬세함 그리고 강약의 적절한 조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안경집은 가벼운 피나무로 만들어지고 겉면에는 낫쇠로 된 배꼽 장식이 있는데 겉은 옷칠 되어 있고 속은 그대로 두어 우리나라 공예품과 같은 처리방식을 사용하였다.<그림 1>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안경은 중국의 안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안경이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가능성은 충분하나 증명할만한 문헌이나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가정으로만 머물러있다.



<그림 1> 학봉 김성일의 대모 안경과 피나무 안경집<sup>16)</sup>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학봉의 안경과 조선후기 언어학자 황윤석의 「이재전서」의 안경역사의 근거 자료들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안경이 비롯된 연대는 임진왜란전인 1580년경으로 추정하며, 조금씩 중국에서 전래되다가 1600년경 독자적인 우리안경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sup>17)</sup> 안경은 조선조 중엽인 순조대(1790~1834)에 이르러 유행하였고, 안경의 값은 당시에 엄청나게 비쌌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우리나라의 안경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비롯된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고 안경이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을 이룩한 시기는 영조 때부터라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발전한 안경은 이후 세간에 널리 퍼져 정조 때에는 임금조차 안경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 2.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와 형태

안경집은 안경을 보호하고 휴대하기 위한 도구로 예로부터 그 기능이 중요시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안경을 부끄럽게 여겨 허리춤에 매달기보다 도포자락에 넣고 다녔으므로 초창기 안경집에는 매는 끈이 없었으나, 점차 안경의 착용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되자 허리춤에 매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본래 우리나라 의복에는 주머니가 없어서 약주머니, 호패, 먹물 통 등을 허리에 찼는데, 그 중 화려한 안경집이 가장 사치스러웠다.<sup>19)</sup> 이때부터 밋밋하던 안경집이 화려해졌으며, 어떤 안경집은 화원이 도안을 하고 조각사가 조각한 것을 칠방에서 칠한 것도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왕족들도 안경집에 멋을 부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경집은 서양의 안경집이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든 것과는 달리 멋을 내는 것으로 착용되어 그 재질과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선중기에 나타난 초기의 안경집들은 주로 기능에 충실하기위해 피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등의 견고한 나무속을 파내고 다듬어서 옷칠이나 기름칠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안경집에 사용되던 통나무는 파기가 힘들어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파낸 조롱박형 또는 석류 형태의 안경집과 대나무 껍질을 얇게 벗겨 엮어서 문양을 낸 채상 안경집 등이 만들어졌

다. 이후 발전된 형태로 대추나무에 사군자, 십장생, 만자문, 연속 꽃무늬, 신선도, 화조, 포도 등 온갖 문양이 새겨 넣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안경집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예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후 호사가들은 나전칠기로 만들기도 하였고, 십장생, 화조, 수복자 등을 화려하게 수놓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궁에서 수놓는 상궁을 두어 안경집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때 비단 위에 산호, 유리구슬 등을 실에 꿰어 수를 놓았다. 안경집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상어 껍질로 만든 어피 안경집이다. 이는 비늘 때문에 매우 거칠지만 솓들에 갈아내면 매끄러워지며 작은 물방울무늬가 나타난다.<sup>20)</sup> 또한 매끄럽게 갈아내면 투명해지는데 여기에 붉은색을 칠하면 붉은 어피, 청색을 칠하면 청색 어피가 된다.

우리나라 어피 안경집과 중국 것의 차이는 중국은 청색 어피가 많고 속 재료는 나무를 사용하여 납작한 형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어피가 많으며 안경집속은 종이로 제작하며, 그 형태가 중국의 것에 비해 통통하다는 점이다.<sup>21)</sup> 또한 호사가들은 은, 백동, 황동, 적동, 주석 등을 띠로 둘러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멋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해주는 실용성을 더해 주었다. 종이로 된 안경집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이를 여러 겹 겹쳐서 바른 뒤 옷칠을 하거나, 종이를 가늘게 잘라 꼬아 엮는 지승 안경집, 속뼈는 종이로 만들고 명주, 모시, 삼베 등으로 감싸거나 옷칠이나 감 물, 쪽 물을 들인 것도 있다. 우리의 닥나무 한지는 질겨서 수명이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으며, 가죽은 가볍고 질겨서 좋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거북의 등껍질 중 색이 좋은 부분을 사용해서 만드는 대모안경집에는 대란국 죽의 사군자가 양각된 것도 있다.<sup>22)</sup>

대모로 된 안경집은 불에 달궈 물렁해지면 틀에 찍어내어 옆면을 부레풀로 붙여 만든 것이다.<sup>23)</sup>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안경 중 가장 오래된 학봉 김성일의 안경 역시 대모테로 만들었다. 암소 뿔로만 만드는 우각 안경집은 색이 곱고 투명해 광택이 낮으며, 은 칠보안경집은 노리개 형태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야기 돌 때 달아주어 눈병이 없기를 기원하였고 불로초 문양을 새겨 장수를 기원하였다. 이렇게 옛사람

			
오동나무 안경집		대추나무 안경집	
			
대나무 안경집	나전칠기 안경집	종이 안경집, 지승 안경집	
			
비단 자수 안경집		어피 안경집	
			
우각 안경집, 대모 안경집		가죽 안경집	
			
금속 안경집			

〈그림 2〉 조선시대 안경집의 여러 소재<sup>24)</sup>

들은 은 칠보 안경집 노리개를 하였는데, 안경집이 장식품의 역할을 했다는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금속 안경집은 튼튼한 반면 무거워서 매우 귀한 편이었으며, 은, 백동, 황동, 적동, 주석 등으로 만든 안경집은 드물게 나타나고 무쇠에 은 입사한 것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 안경집의 형태는 종이, 어피, 비단과 같이 유연한 소재의 경우 원형, 사각형, 누빔 주머니 형, 찻지 형 등으로 나타났다.<sup>25)</sup> 조선 시대 안경집의 소재별 이미지는 〈그림 2〉와 같다.

### Ⅲ. 조선 시대 안경집의 색채 특성 분석 결과

#### 1. 안경집의 색상분석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소재를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크게 나무, 섬유, 어피, 종이, 대모·우각, 기타로 분류하였다. 소재에 따른 색채는 안경집의 형태를 구성하는 주재료와 장식을 위한 구슬, 끈, 술 등의 부속 재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안경집은 자연소재로 만들어져서 색상이 단일하지 않고 미묘한 여러 색채를 보여주는

	안경집과 색추출	H V/C		안경집과 색추출	H V/C		안경집과 색추출	H V/C
나무		10YR 5/2 10GY 5/1	섬유		7.5Y 9/1 5PB 4/4	어피		10GY 5/2 2.5Y 4/1 10GY 9/1
		10R 5/ 7			2.5GY 6/9 5PB 6/2			5YR 8/7
		5Y 5/0 5R 3/7 5Y/7 4.5			7.5R 4/17 10PB 5/2 5Y 7/5			10YR 7/4 2.5Y 4/2 5Y 5/5
종이		5Y 8/9 5GY 8/4	대모 우각		5PB 3/3 5Y 6/9	기타 <금속>		10P 1/0 2.25Y 5/3
		5YR 5/6 10R 3/3			5YR 4/10 10YR 1/3			5YR 4/3 7.5YR 3/3
		5Y 8/3			10P 5/1 7.5YR 4/6			5R 4/8 75YR 7/6
		5YR 1/2 7.5Y 4/6			10Y 8/6 5.95YR 5.46 8.99			7.5YR 7/6 10YR 4/4
		10G 5/5 2.5Y 6/5 10Y 4/4			10Y 5/4			7.5R 7/7 2.5YR 2/3 2.5R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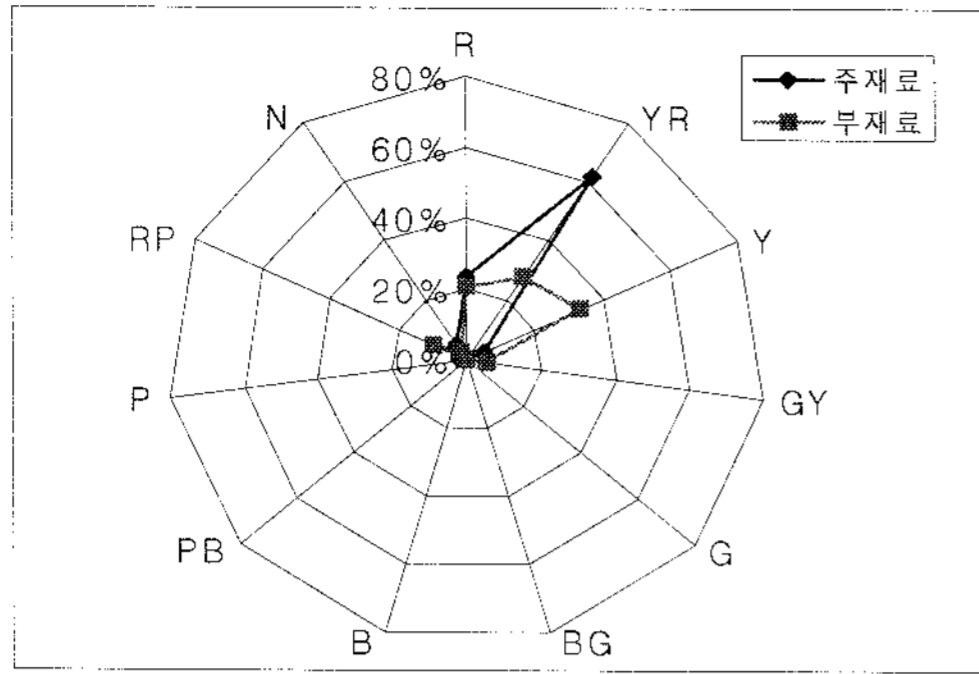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별 주재료, 부속 재료의 대표 색 추출 방법

데 이러한 색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된 색으로 보이는 색들을 시감으로 〈그림 3〉와 같은 방법으로 159개의 안경집에서 대표 색으로 추출한 후 선정된 623개의 색을 HV/C 값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섬유소재의 경우 안경집 안에 사용된 자수는 주재료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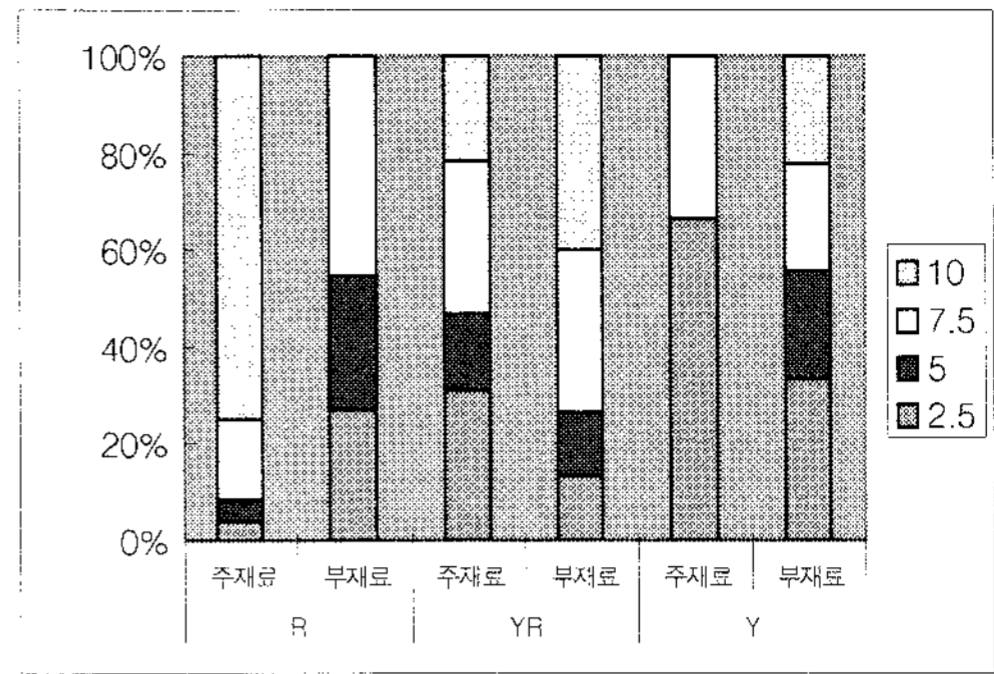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색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소재별 안경집에서 정성적 방법에 의하여 주재료와 부속재료의 대표 색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나무 39개, 섬유 32개, 어피 32개, 종이 31개, 대모 우각 12개, 기타 13개의 안경집 총 159개에서 추출된 주재료의 색상 398개와 부속재료의 색상 225개, 총 623개의 대표 색을 추출하여, 이를 정량적

으로 분석한 결과, 나무안경집의 주재료는 YR(62%) R(2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속재료는 Y(34%), YR(28%), R(21%)순으로 나타났다. 나무재료의 고유한 색인 YR과 R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YR 계열은 7.5YR과 2.5YR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 붉은 빛을 띤 주황과 노란 빛을 띤 주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은 10R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주홍빛 붉은 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부속재료는 YR과 함께 인접색상인 R, Y의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그림 4〉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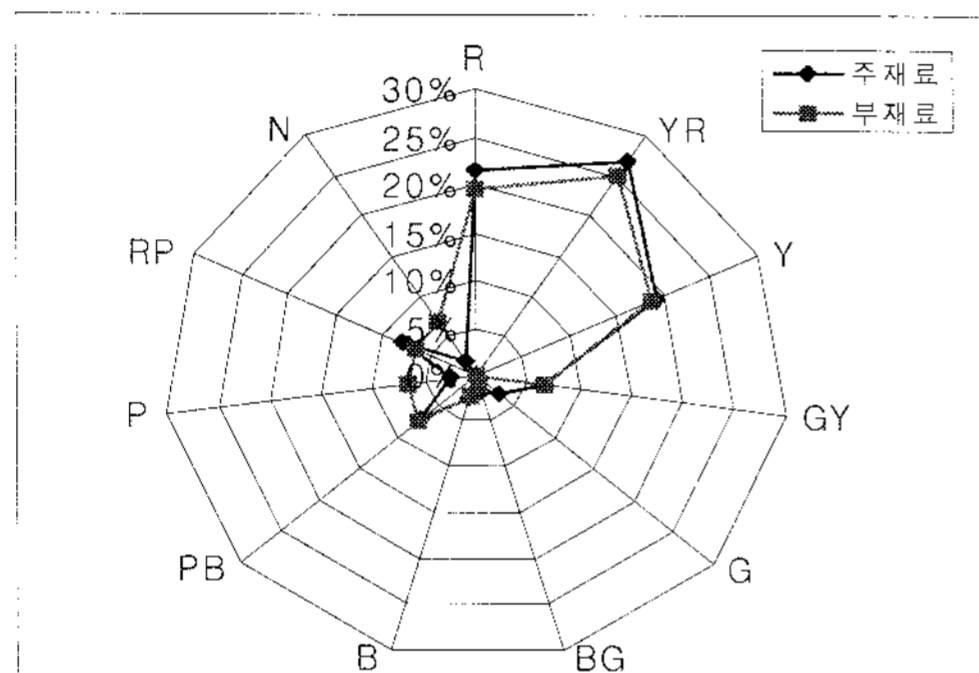
섬유 소재 즉, 비단 위에 수를 놓거나 누빔을 한 안경집의 경우 주재료는 YR(27%) R(21%), Y(19%), RP(8%), PB(6%)의 순과 부속재료 YR(25%),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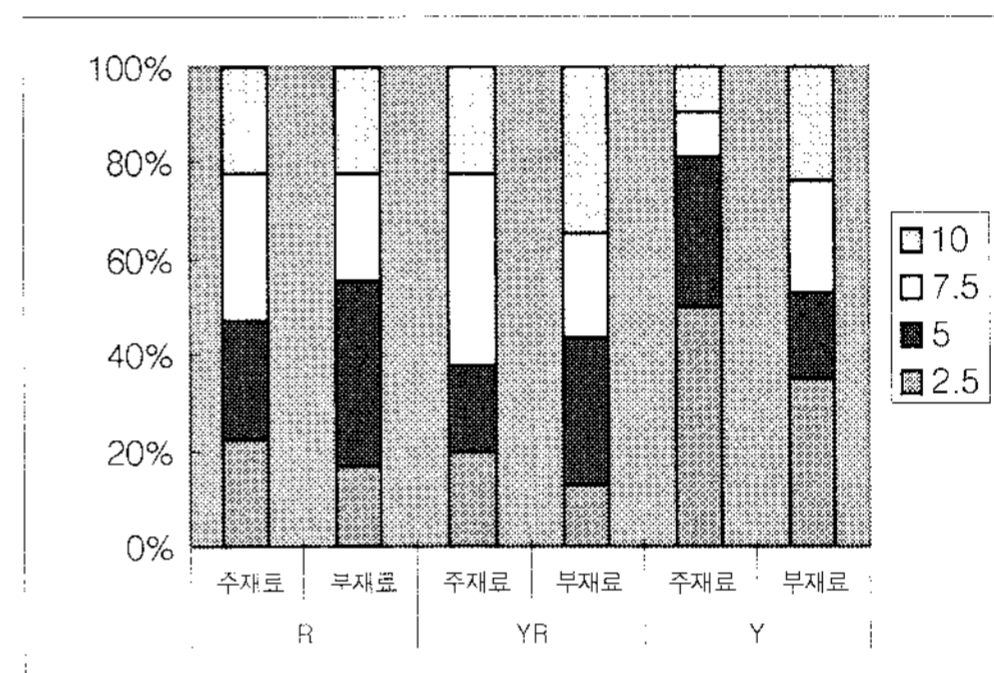
<그림 4> 나무 소재의 안경집 색상 분포도



<그림 5> 나무 소재의 안경집 R, YR, Y의 분포도



<그림 6> 섬유 소재의 안경집 색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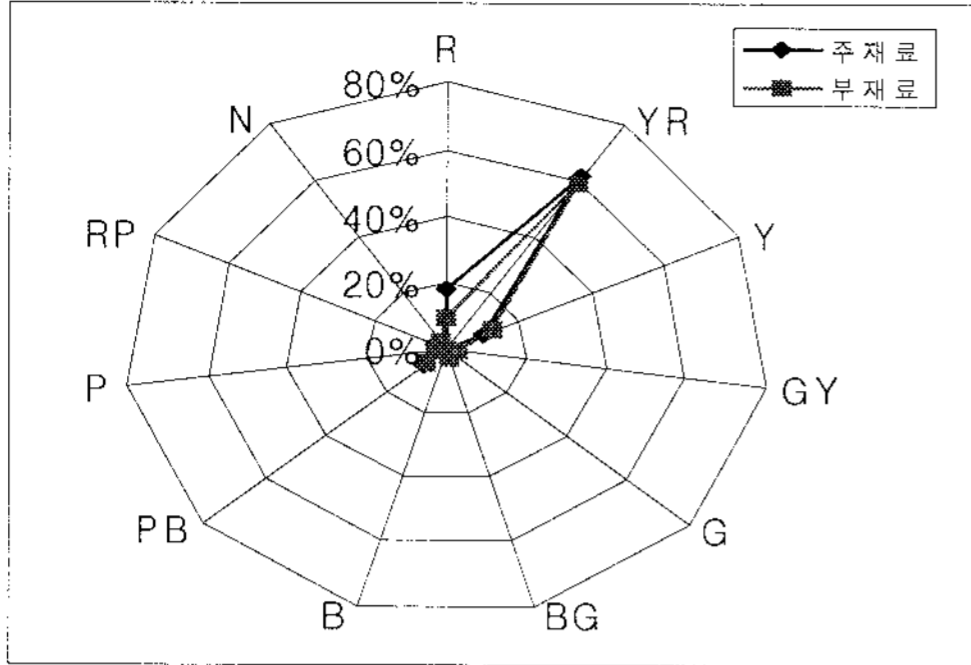
<그림 7> 섬유소재의 안경집 R, YR, Y의 분포도

(20%), Y(18%), RP(7%), N(7%)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소재는 다른 소재들의 비해서 가장 넓은 영역의 색상 분포를 보였다. 이 시기의 복식에 대한 연구 결과<sup>26)</sup>와 비교할 때 복식의 경우 Y>R>YR>PB순으로 오방색중 7.5R과 2.5Y의 빈도가 높았으며 안경집의 경우 오방색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YR>R>Y>RP의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복식의 경우는 주황빛을 띤 붉은색과 주황빛을 띤 노란색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안경집의 경우 노란빛의 주황색과 주황빛의 붉은색이 주재료 색에 많이 나타났으며 부속 재료에는 보다 선명한 주황색과 붉은 색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색상 분포도에서 주재료와 부속재료가 거의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었다.<그림 6>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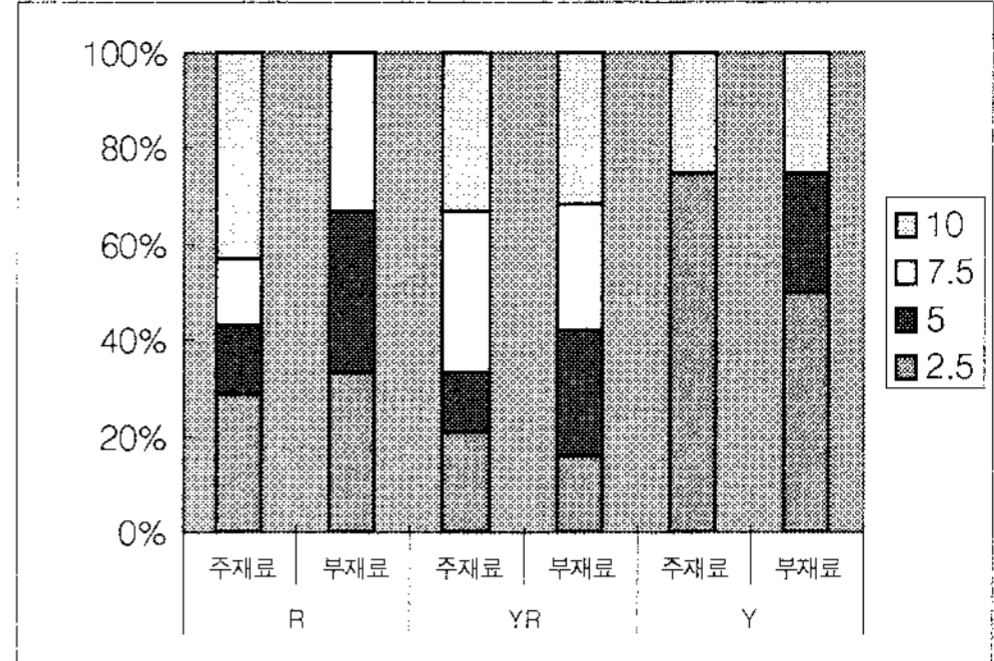
종이 안경집의 경우 주재료인 종이의 색상분포는 YR(62%)>R(18%)>Y(10%)의 순으로 YR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부속재료는 YR(59%)>Y(13%)>R

(9%)>PB(6%)순으로 나타나 주재료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PB계열의 색상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료의 YR의 경우 10YR, 7.5YR로 노랑 빛을 띤 주황계열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부속재료의 YR계열은 5YR, 7.5YR 10YR이 고르게 나타났다.<그림 8>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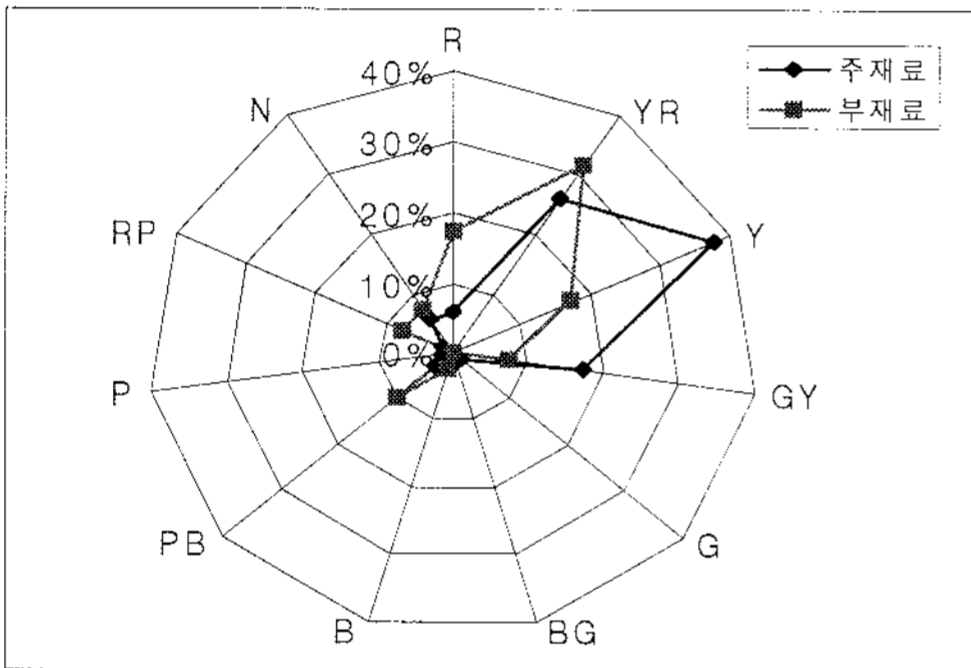
상어의 껍질을 다듬어 사용했던 어피는 Y(38%) YR(26%) GY(17%) R(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사용된 부속재료들은 YR (32%), R(17%), Y(17%) GY(7%), PB(10%) 순으로 나타났다. 어피의 경우 염색을 청색, 붉은색, 백색 등으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백색 염색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색이 천연의 상어 껍질 색에 의해 여러 색조의 황갈색으로 보인다. 따라서 Y, YR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부속재료의 경우 YR을 중심으로 인접한 R과 Y가 많이 보였으며 PB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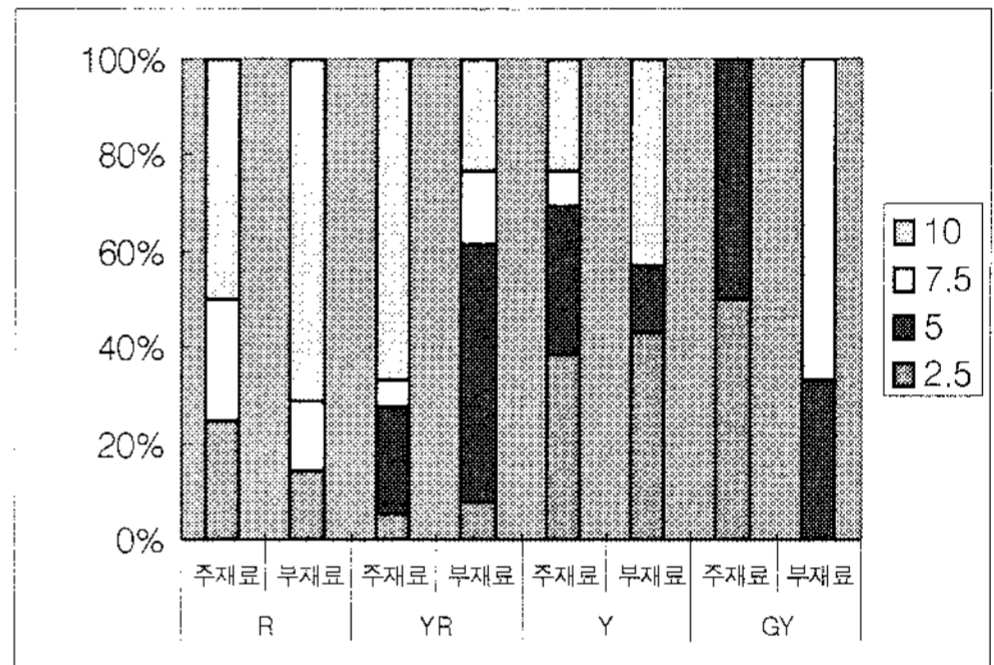
〈그림 8〉 종이 소재의 안경집 색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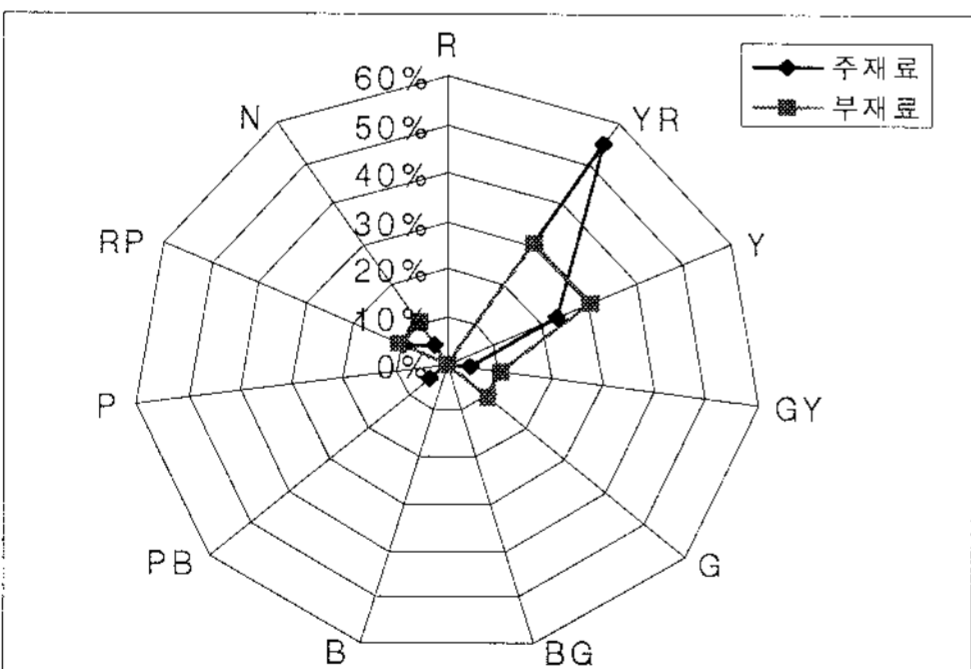
〈그림 9〉 종이소재의 안경집 R, YR, Y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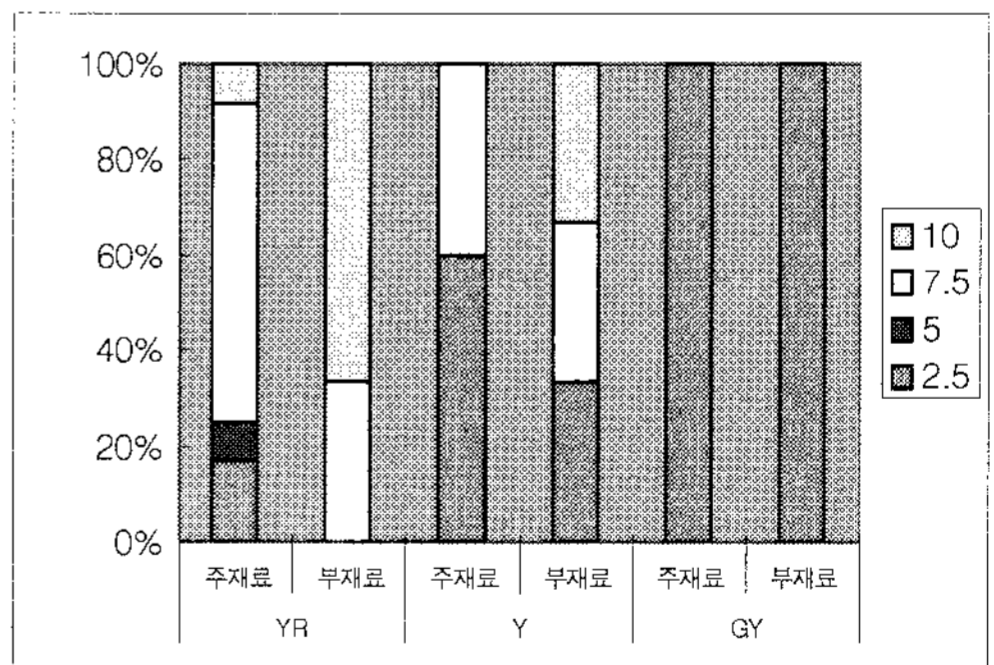
〈그림 10〉 어피 소재의 안경집 색상 분포도



〈그림 11〉 어피소재의 안경집 R, YR, Y, GY의 분포도



〈그림 12〉 대모, 우각 소재의 안경집 색상 분포도



〈그림 13〉 대모, 우각 소재의 안경집 R, YR, Y의 분포도

〈그림 10〉〈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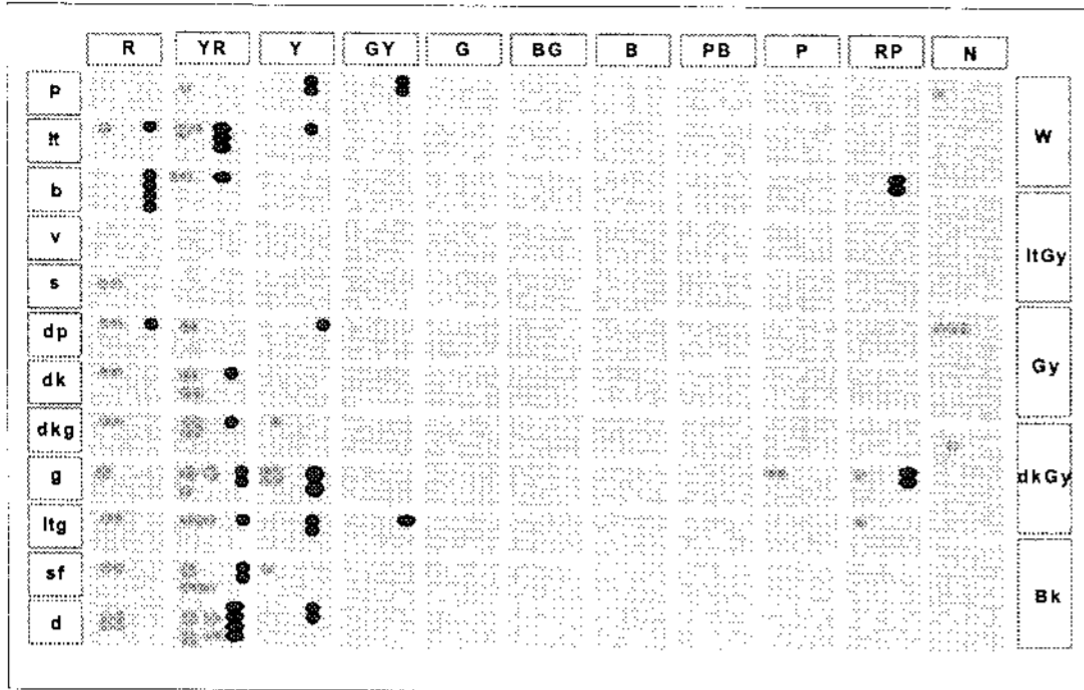
대모, 우각의 경우 YR(55%)>Y(23%)>RP(9%)>GY, PB, N(5%)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속재료는 YR, Y(30%)>GY, RP, N(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큰 높은 분포를 보인 Y의 경우 2.5Y가 높은 분

포를 보였다. 대모, 우각의 경우 특이점은 R의 분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어피와 대모, 우각과 같이 동물성 재료의 경우 GY, RP, PB가 비교적 높은 색상 분포를 보였다.〈그림 12〉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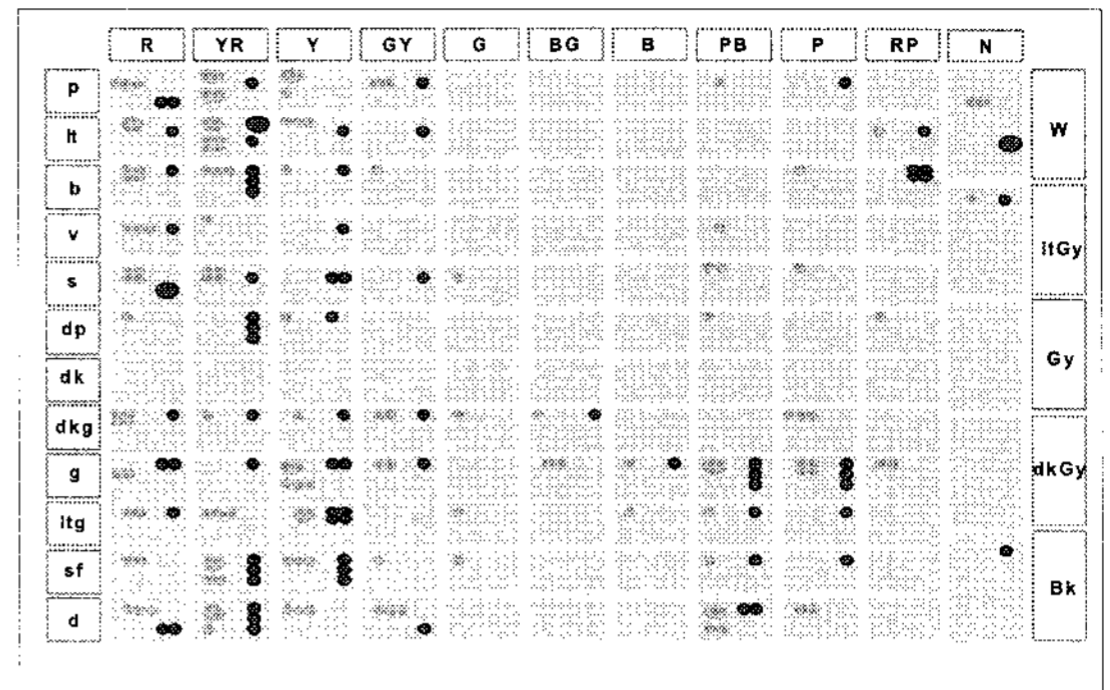
이외에 기타재료로 나전칠기, 금속, 가죽 등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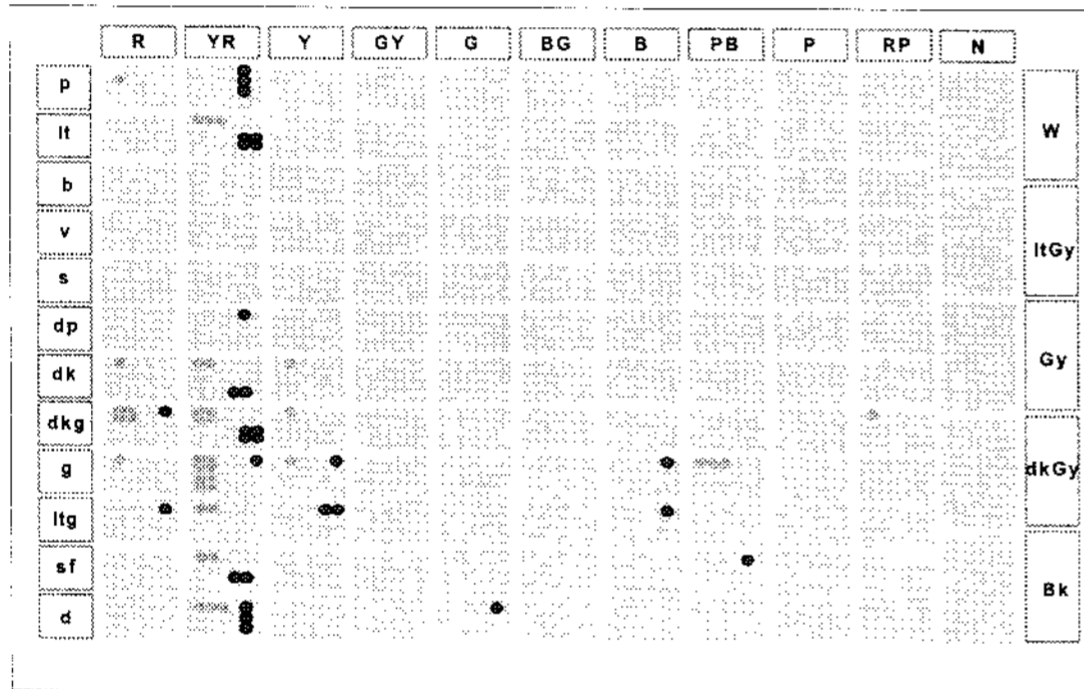
(●●주재료●●부속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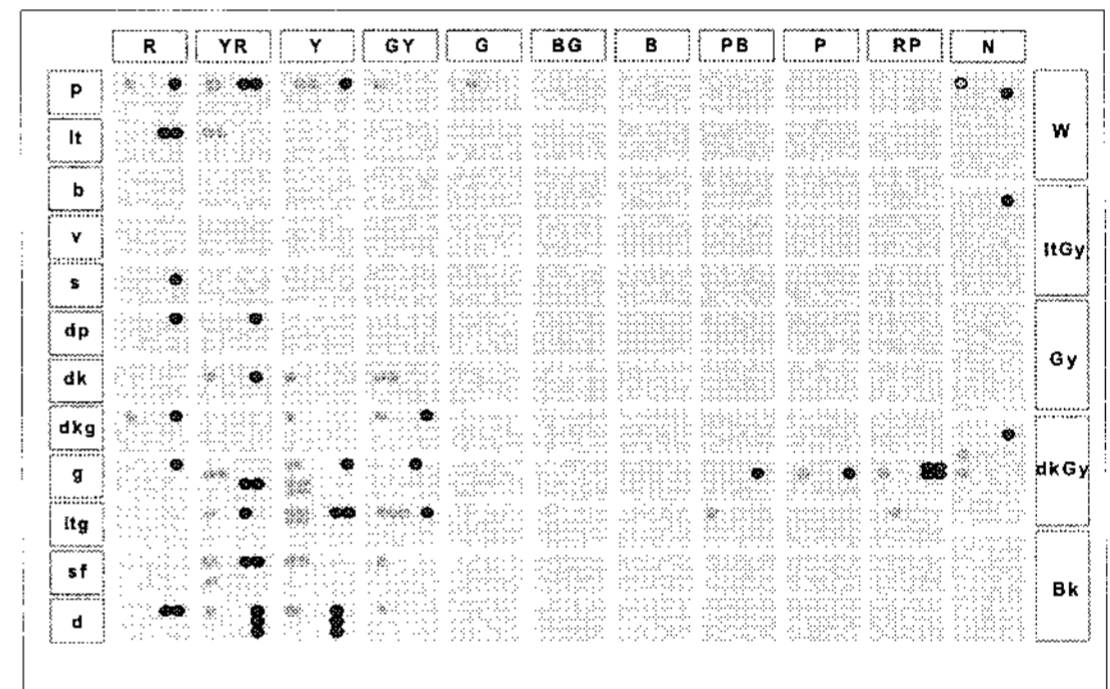
<그림 14> 나무소재 안경집의 색상/색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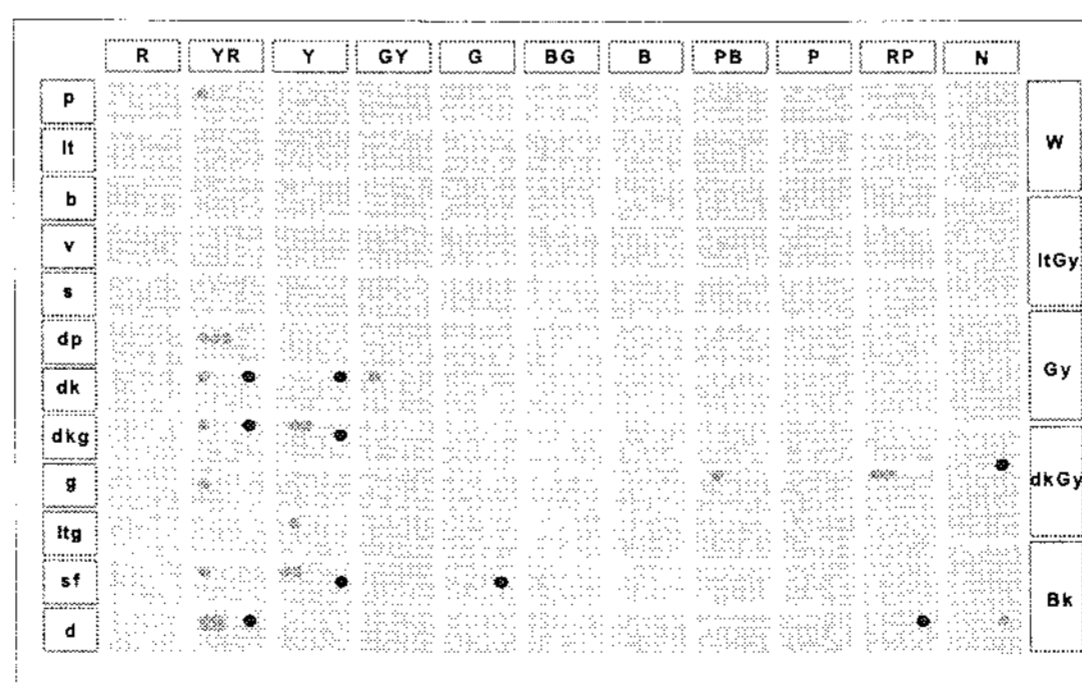
<그림 15> 칠유소재 안경집의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16> 종이소재 안경집의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17> 어피소재 안경집의 색상/색조 분포도



<그림 18> 대모, 우각 소재 안경집의 색상/색조 분포도

YR과 Y의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분석을 통해 대모와 우각을 제외한 소재별로 붉은 색감의 나무재료, 칠유, 붉은 색과 백색 염색을 통한 어피, 종이소재의 안경집에서 모두 주홍에 가까운 붉

은 빛이 많이 나타난 것은 한국인의 전통적 선호 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지며<sup>27)28)</sup>, RP는 조선시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며 저고리의 깃과 고름과 자수 등의 직물소재에서 보이는 강조 색<sup>29)</sup>으로 나무와 칠

소재	색상	10R	7.5YR	2.5Y
나무	주재료			
		10R 3/2	7.5YR 6/10 7.5YR 7/11	2.5Y 9/4 2.5Y 4/1
나무	부속 재료			
		7.5YR 3/2 7.5R 5/2	5Y 6/1 10GY 5/2	5R5/8

소재	색상	7.5R	7.5YR	2.5Y
섬유	주재료			
		7.5R 5/4	7.5YR 6/6 7.5YR 7/1	2.5Y 8/5 2.5Y 7/8
섬유	부속 재료			
		10Y6/6,5P4/ 2, 10YR7/1	5Y 1/2 5YR 5/6	7.5RP5/9,5PB 5/7, 2.5R4/10

소재	색상	10R	7.5YR	2.5Y
종이	주재료			
		10YR 1/1	7.5YR 5/5	2.5Y 4/5
종이	부속 재료			
		10Y 5/7 10G 5/4	2.5Y 7/3	10Y 8/4

소재	색상	10YR	2.5Y	5GY
어피	주재료			
		10YR 9/1 10YR 8/1	2.5Y 6/4	5GY 7/4 5GR 3/4
어피	부속 재료			
		10YR 7/5 7.5PB 5/3	5PB 4/1 5YR 5/8	7.5YR 6/4

소재	색상	7.5YR	2.5Y	2.5GY
대모 우각	주재료			
		7.5YR 3/2 7.5YR 6/6	2.5Y 7/5	2.5GY 1/4
대모 우각	부속 재료			
		10BG 5/5	10GY 3/2	7.5YR 4/7 7.5B 3/10

〈그림 19〉 면셀의 40색상에 의한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별 대표 색

유의 안경집에서도 배색으로서 특징적으로 사용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2.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색상/색조 분석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색상과 색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색상은 주로 R, YR, PB, RP, N으로 난색계열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BG와 B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복식의 색상 분포와도 비슷하였다. 색조는 섬유소재를 제외하면 거의 dkg, g, ltg, sf, d등 중·저명도의 색조에 치중되는 분포를 보였다. 소재별 분석에 있어 나무 안경집의 주재료는 거의 R, YR 계열로 어둡거나 grayish한 중·저명도 색조에 치중 되어있었다. 함께 사용된 부속재료는 YR, Y, GY, RP의 색상분포에서 p, lt, b의 고명도 색조와 저명도의 색조가 함께 사용되어 안경집을 장식 하였다(그림 14). 섬유소재의 안경집은 거의 자수 안경집으로 G, BG, B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

든 색상이 사용되었고 v, dp, dk의 색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은은한 색조로 세련된 자수가 주를 이루었다(그림 15). 종이 안경집에서도 나무와 비슷한 형태의 색조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장식색의 경우 YR과 더불어 G, B, PB 계열의 저명도 색조가 장식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그림 16). 어피안경집은 YR, Y, GY의 색상분포를 나타냈으며 부속재료에는 grayish한 RP가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색조는 주재료와 부재료 모두 종이, 대모·우각과 같이 b, v, s의 고명도 색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7). 대모와 우각은 Y, YR 계열이 중·저명도의 색조영역이었으며, 주재료와 부재료의 색상, 색조 분포가 거의 비슷하여 유사 색 계열로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이와 같이 안경집은 소재는 다양하나 사용되어진 색상과 색조는 Y, YR 계열의 중·저명도의 색조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부속재료는 주소재의 유사 색과 더불어 소재에 따라 섬유와

어피는 PB, P, RP 계열, 대모·우각은 GY, RP 계열의 중·저 명도 색조로 장식하고 있었다.

### 3. 소재별 대표 색 추출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소재에 따라 나타난 623개의 색을 먼셀의 40색상으로 분류 했을 때 소재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난 주재료 색을 <그림 5, 7, 9, 11, 13>를 토대로 하여 하나의 색 영역에서 대표 색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부속 재료 색을 선정하여 <그림 19>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안경집에서 얻은 우리나라 전통 색감의 특성을 고려한 배색으로 현대 디자인에서 활용한다면 우리 고유의 색 느낌을 드러내는 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의 기원과 변천을 살펴보고 그 소재와 형태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를 분류하였으며, 소재에 따른 색채특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오방색 범주의 연구와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색감을 가지는 한국 색채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안경집에 나타난 소재에 따른 색상분포를 비교한 결과 주재료는 YR, Y의 높은 색상분포를 보였다. 그 중 섬유소재의 경우 자수와 누빔에서 색상의 분포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어피와 대모·우각과 같이 재료 그 자체로 사용하거나 염색을 하여도 그 색이 우리나라는 동물성 재료의 경우는 Y, YR 외에도 GY가 나타났다. 부속재료는 주재료와 거의 비슷한 색상분포를 보여 유사배색을 나타냈으며 RP와 PB가 강조 색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조선시대 안경집의 색조와 색상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중·저명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명도 색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반면 고채도의 색조는 드물게 나타났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선 시대 안경집의 소재에 따른 주재료

와 부속재료의 대표 색을 배색 제안하였다.

조선시대 안경집은 생활용품으로써의 기능뿐 만 아니라 장식품으로써의 아름다움까지 지닌 재료와 색이 다양한 공예품으로 흔치 않은 예이다. 과거 하나의 패션으로 사용되었던 안경집의 다양한 재료와 색에 따른 멋을 통하여 한국 전통 색감을 찾고 그 세련된 색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현대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전통적인 한국의 색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현대디자인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윤지영, 하지수 (2006). 한국전통 자수의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복식, 56(8), p. 96.
- 2)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마당 박물관 소장품. 자료검색일 2007.8.31, 자료출처 <http://www.nfm.go.kr/>
- 3) 온양민속박물관 (2000).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pp. 52-53.
- 4) 온양민속박물관. 자료검색일 2007.8.31, 자료출처 [http://www.onyangmuseum.or.kr/sch/sch\\_src/search\\_field.html](http://www.onyangmuseum.or.kr/sch/sch_src/search_field.html)
- 5) 초당대학교 안경박물관. 초당대학교 안경박물관 소장품도록. 초당대학교 pp. 3-5, 11
- 6)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2007). 한국의 자수 haruhana.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2/22, 4/16, 6/19, 6/10, 9/22, 9/23 20/29, 11/9.
- 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유물 사진자료(5602-203, 5579-53, 5579-52, 5597-51, 5597-50, 1321, 5602-204, 5602-206, 5602-207, 5602-205, 4829, 5703-1, 5602-208, 5602-209, 5703-2, 5703-3, 5703-4, 5703-5, 5703-6, 5602-210)
- 8) 김영인, 이지현 (2006). 한·중·일 전통 복식색채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6(8), p. 38.
- 9) 이지현, 김영인 (2006). 한국복식의 색채특성과 문화기호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1). 복식, 56(2), pp. 57-58.
- 10) 김영인, 주미영, 이현주, 김석정(2004). 국내외 메이크업 브랜드 색조화장품의 색채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2), p. 93.
- 11) 원광보건 대학교 안경 광학과 (2005). 안경의 역사. 원광보건 대학교. 자료검색일 2007.2.14, 자료출처 <http://optics.wkhc.ac.kr/data/>
- 12) 위 출처. <http://optics.wkhc.ac.kr/data/>
- 13) 금복현 (1995). 옛 안경과 안경집. 대원사, p. 116.
- 14) 위의 책, p. 18.
- 15) 金誠一 (1538~1593)본관 의성(義城). 자 사순(上純). 호는 학봉(鶴峯). 1590년 통신사 부사로 일본을 시찰

후 불침설을 주장하는 오판을 하였으나 전쟁 발발 후 1592년 한성부판윤이 되었으며, 1596년 호조판서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군량 조달을 지휘, 전공을 세우고 노량해전에서 전사.

- 16) Vichoom (2007.10.31). 선조들의 옛 안경. 자료검색일 2007.12.4, 자료출처 <http://blog.daum.net/vichoom/472921>
- 17) 금복현 (1995). 앞의 책, p. 28.
- 18) 위의 책, p. 28.
- 19) 위의 책, p. 104. 조선후기 사가 시인이었던 이서구 (1754~1825)는 「안경의 내력」이란 글에서 우리나라 의복에 안경집을 휴대했던 모습을 전함.
- 20) 조성관 (2007.2.7). 주간조선. 안경 400년 ..한국사와 함께했다. 자료검색일 2008.2.22,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jhsong46/70014006645>
- 21) 금복현 (1995). 앞의 책, p. 100.
- 22) 위의 책, pp. 90-113.
- 23) 대모로 제작된 문화재 (2007.2.2). 자료검색일 2008.2.2,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chdml2?Redirect=Log&logNo=140034168027>
- 25) 금복현 (1995). 옛 안경과 안경집. 대원사. 초당대학교 안경박물관 소장품전시도록( \* 표시)
- 24)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옷과 장신구. 열화당, pp. 164-167.
- 26) 김영인, 이지현 (2006). 앞의 논문, pp. 38-41.
- 27) 권영걸, 이지영, 안민선, 성혁진 (2005). 한국인의 색채기호특성에 따른 한국적색(RED)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9(3), p. 58.
- 28) 김영인, 이지현 (2006). 앞의 논문, p. 39.
- 29) 김순영, 남윤자, 조우현 (2004).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8(11), p. 1459.
- 30) 조희래, 김영인 (1996). 색동은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1). 한국의류학회지, 20(5), pp. 718-727.
- 31) 초당대학교 안경 박물관. 자료검색일 2007.2.14, 자료출처 <http://www.chodang.ac.kr/opmuseum>
- 32) zonefeel (2003). *eye-story*. 자료검색일 2007.2.14, 자료출처 <http://eye-story.com/product/product94.htm>
- 33) APWINC, Sookmyung Women's Univ. 자료검색일 2007.2.14, 자료출처 <http://www.women.or.kr/culture/clothes/pocket/pocket.html#p05>
- 34) 사전자수박물관. 자료검색일 2007.2.14, 자료출처 [http://www.bojagii.com/images/emb/life/em\\_lf21.htm](http://www.bojagii.com/images/emb/life/em_lf21.htm)
- 35) 문화 관광부 e뮤지엄. 자료검색일 2007.2.14, 자료출처 <http://www.korea-museum.go.kr>
- 36) 정종구 (2007.4.2). 기획전시 우리 옛 안경전. 사이언스 타임즈. 자료검색일 2007.8.30, 자료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19284>
- 37) 대모로 제작된 문화재 (2007.2.2). 자료검색일 2007.8.3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chdml2?Redirect=Log&logNo=140034168027>
- 38) Vichoom (2007.10.31). 선조들의 옛 안경. 자료검색일 2007.12.4, 자료출처 <http://blog.daum.net/vichoom/472921>